

# 공심(公心)으로 행동한 지도자, 중봉 조헌



- 중봉 조헌(1544~1592)

정명가도 요구한 일본 사신의  
목을 벨 것 요구하며 도끼 시위  
임란 발발 뒤엔 의병 일으켜

‘내가 올린 상소가 부당하다면  
도끼로 나의 목을 치라’고 한 선  
비가 있다. 충청도 옥천에서 상경  
한 조헌은 도끼를 옆에 두고 대  
궐문 밖에서 3일간 ‘명으로 가는  
길을 빌려달라(征明假道)’고 요  
구한 일본 사신의 목을 베어야  
한다고 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 
않았다. 그리고, 임진왜란은 일어  
났다.

율곡과 토정의 문인이었던 선  
생은 율곡의 뜻을 잇는다 하여  
후율이라 하고, 충청도 옥천의 산  
골로 은거해 후율정사를 지어 스  
승을 기억했다. 모함을 받고 파직  
되기 전 보은 현감으로, 이후 공  
주목 제독관으로 복귀해서는 지  
방교육환경을 개선해 많은 선비  
들이 멀리서 찾아오기도 했다. 의  
병을 일으키고자 쓴 격문을 보고  
1600여명이 모인 것 또한 충청도  
에서의 선생의 지도력이 어떠했  
는지 보여준다.

출신을 따지지 말고 인재를 기  
르자 했고, 노비를 양민으로 만들  
자 했다. 왜군이 침입할 지역과  
지역방어에 적합한 인물까지, 그  
의 상소는 분석적이었지만, 임금  
은 듣지 않았다. 왜적이 침입하여  
승군(僧軍)과 함께 청주성을 수  
복했으나, 충청도순찰사의 방해  
로 강제해산을 당하고 남은 의병



중봉 조헌 초상화

700여명으로 후속군대의 도움을  
받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다 전사  
했다. 금산전투는 곡창지대 전라  
도를 지켜내며 임진왜란 전세를  
유리하게 만들었다. 그러나, 선조  
는 말고삐를 쥐 마부에게도 내린  
선무공신교서를 그에게는 내리지  
않았다.

누군가는 도끼를 옆에 두고 상  
소를 올린 그를 무례하다고 하지  
만, 가난한 삶에서 체득한 실천력  
은, 항상 그릇이 작은 임금을 탓하  
기보다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  
하도록 선생을 이끌었다. ‘뜻을 얻  
지 못한다면, 혼자서라도 도를 행  
하라(不得志獨行其道)’는 맹자의  
가르침을 실천한 이가 몇이나 될  
까. 선생은 늘 강했고, 묵묵했다.

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  
다. 공심보다는 처세를 말하는 상  
관에게 면전에서 반대의견을 내는  
사람들이 지위에 오르기는 어렵다.  
칠백의총의 전사들도 굳건한 신념  
으로 눈을 감았을 것이라는 믿음  
과 동국 18현으로 문묘에 배향된  
선생의 이름을 보며 작은 위안을  
삼는다. 삶은 늘 그렇듯이 억울한  
일투성이지만, 그래도 ‘지구는 돌  
고’, ‘아닌 건 아닌 것이다’.

/박정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
선임연구원